

# 中世國語 終聲表記 ‘ㅅ’에 대하여

金 京 芽

## I. 緒 論

中世國語의表記體系나音韻體系를 논의함에 있어서訓民正音의齒音字 ‘ㅅ’의 문제는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주제였다. 그것은 특히解例終聲解의八終聲 규정과 관련하여, 현대국어에서의音節末子音體系와의 차이점을 들 수 많은 연구업적들을 낳게 하였다. 즉 ‘八字可足用’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15세기의 표기법의 원리와 관련하여서도, 또 중세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를 확인하려는 작업에서도 꼭 필요한 논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표기법의 문제와 음운론의 문제를 다소 혼동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할 본고의 논의는 가능한 한 표기법상의 개념과 음운론적인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500여년 전의 문헌들을 통해서 그 단편적인 모습만을 접할 수 있는 중세국어에 대한 작업은 실제로表記된文字들에 어느 정도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수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제齒音字 ‘ㅅ’이 종성의 표기로 쓰인 경우들을 중심으로 이 문자가 나타내고자 한音價가 모든 위치에서等價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왕의 종성표기 ㅅ에 대한 논의들이音素로서의 /s/과 /t/이 중세국어의 음절말 위치에서對立關係를 이루고 있었나에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면, 본고는 이같은 작업의 선행작업으로서 종성표기 ㅅ이 과연 모든 출현 위치에서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었나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음소 /s/과 /t/의 음절말 위치에

서의 對立關係를 정확히 규명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 II. 지금까지의 논의

2.1. 종성표기 ㅅ의 음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개 두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견해는 ㅅ과 ㅆ이 순전히 표기법의 문제일 뿐, 두 문자가 나타내는 음절말에서의 음성실현형은 모두 ‘內破音[tʰ]’였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같은 견해는 허웅(1953, 1958), 李基文(1959)의 초창기 연구업적들에서 주로 보이다가 80년대에 이르러 李仁子(1984), 李觀洙(1986), 이은정(1986), 李翊燮(1987) 등의 논의에서 새롭게 보이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근본적으로 종성표기 ㅅ과 ㅆ이 어째서 그토록 정연하게 區別(물론 어느 정도의 예외는 있었지만)되었나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두번째 견해는 종성 ㅅ이 ㅆ, 즉 [tʰ]까지는 中和가 미치지 못한 ‘內破的 [s]’ 또는 ‘매우 간극이 좁으면서도 그 摩擦은 매우 약한 [s]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같은 견해는 초기의 입장을 수정하면서 李基文(1961, 1963, 1972a, b)와 허웅(1965, 1975) 등에서 보다 정밀한 논거를 토대로 검토되어 학계의 통설로 자리잡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 견해도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으니 사이시옷의 음가와 관련하여 齒音字 ㅅ이 훈민정음의 文字運用上 중대한 예외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內破的 [s]’가 정확히 어떤 음성학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2. 최근의 몇몇 논의는 ㅅ系 合用竝書의 위상과 관련하여 종성표기 ㅅ의 음가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의 ‘ㅅ’이 두가지 음성실현을 나타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崔林植(1989)에서는 사이시옷과 語中 ㅅ系 合用竝書는 聲門音化한다고 보아 이 위치에서의 聲門狹窄音[·]과 內破的 [sʰ]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박창원(1991)에서는 ㅅ계 합용 병서가 子音群인지 된소리인지의 문제를 다루면서 음절말에서의 [s]와 [ʰ]가 모두 종성표기 ㅅ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종성표

1) 연구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金周弼(1988:204)를 참조.

2) 이같은 견해를 최초로 표명한 것은 安秉禧(1959:9-10)의 각주에서이다.

기 ㅅ이 두가지 음가를 갖게 된 것은 15세기 당시에 음절말에서의 내과화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접근의 태도는 돋보였으나 음절말 [t]와 구별되는 “제 음가 [s]”의 음성학적 실체는 여전히 분명하지 못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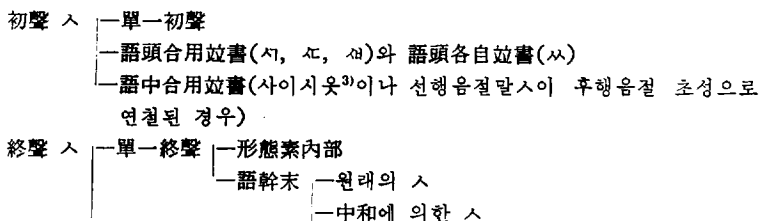
金周弼(1988)의 논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5세기에 ㅅ으로 중화되었다고 본 음절말 ㅅ, ㅈ의 先語末語尾와의 統合樣相을 토대로 ㅅ, ㅈ은 이미 ㄷ으로 중화되었다는 논의를 펴고 있어 흥미롭다.

### Ⅲ. 終聲記表 ㅅ의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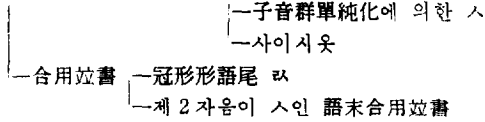
3.1. 본고의 주된 관심은 終聲記表 ㅅ에 있는 것이지만, 그 음가 추정에 있어서 初聲記表 ㅅ과의 관련성은 불가분의 것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초중성에서 쓰인 모든 ㅅ을 출현환경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겠다.

기왕의 논의들에서는 중성표기 ㅅ과 ㄷ의 음가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ㅅ계 語頭合用竝書의 음가 문제에만 초점을 두므로써 초성과 중성에서 쓰인 동일한 표기 ㅅ의 유기적 관련성을 간과해 온 듯하다. 15세기 문헌들에 나타난 중성ㅅ의 음가가 무엇이나에 따라 실제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추측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역으로 합용병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성 ㅅ의 실재도 달리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齒音字 ㅅ이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3) 安秉禧(1968)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쓰이는 사이시옷의 기능을 屬格으로 규정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속격 ㅅ과 사이시옷을 구분하여 쓰지 않는다.



3.2. 중성표기 ㅅ에 대한 본고의 논의를 펴 나가기 전에 이상의 분류대로 齒音字 ㅅ의 쓰임을 용례를 들어 제시해 보겠다(본고의 出典略號는 李朝語辭典에 근거한다).

3.2.1. 初聲 ㅅ

우선 語頭나 語中에서 單獨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들이 음소 /s/를 반영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슴도 샅기 비글하 ㅎ거든(釋 11:41)

다음은 語頭合用竝書의 예들과 語頭各自竝書 ‘ㅅ’이 쓰이는 경우이다.

- a. 무므로서 세듯하야(釋 9:31)  
하늘토 워며 삭토 워더니(曲 172)  
효근벌에 나아 모뎨 쉼씨(月釋 2:51)
- b. 도르혀 사르뎨 쏘아든(法華 2:108)

이제 어중에서 생기는 합용병서의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자. 이들 합용병서는 사이시옷이 후행음절 초성으로 연결되거나 선행음절말의 ㅅ이 연결되는 경우에 문면에 드러나게 된다.

- a. 마뎨글(龍 5:34) 마근담쌀(龍 5:27)
- b. 아드넨괴(龍 25) 부더외(釋 6:9)/마슴마장(釋 13:41) 마슴마장(釋 6:11)
- c. ㅅ소리(釋 19:15) 엄소리(訓詁 4)
- d. 마리를 갖마시고(曲 120) 머리를 가사라 ㅎ야시놀(月釋 7:8) ‘갓-  
天下를 닷다시릴씨(龍 6) 너를 마씨노라(釋 11:14) ‘맞-’
- e. 내 百姓 어엇비 너기샤(龍 50) 衆生을 골모 어여씨 너기더니(釋 11:18)  
‘어엇-ㅅ-브-ㅅ-이’
- f. 머리 좃습고 슬보더(月釋 10:13) 머리 조싸바 禮數ㅎ습고(月釋 10:66)  
‘좃(중)-ㅅ-습-’

위의 예들 중 c, f의 경우는 ㅅ이 쓰인 경우를 따로 뽑아 놓은 것이다. 쓰인 기원적으로 各自竝書인 경우와 사이시옷이 후행음절의 초성 ㅅ과

연철된 合用竝書의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sup>4)</sup> f의 경우를 보면 謙讓法 先語末語尾의 한 異形態인 ‘-습-’이 用言語幹末 ㅅ과 연결될 때에도 합용병서 ㅅ이 출현함을 알 수 있다.

### 3.2.2. 終聲 ㅅ

먼저 冠形形語尾 ㅅ을 대신하여 ㄹ이 쓰인 경우를 제시해 보자.

드르십 제(龍 50)

드르십 부니오(月釋 2:67)

그릅 슬(楞 4:122)

그습 ㅅ 업스니(月釋 7:58)

주릅 거서(月釋 18:32)

드립 華瓶(月釋 10:119)

드웁 ㅅ장(月釋 1:47)

다음은 사이시옷의 경우이다. 사이시옷 즉 屬格 ㅅ은 선행어의 중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15세기 표기법상의 원칙이라 할 수 있어서 이미 중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과 병서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5)</sup>

바롬 ㅅ꺄 소리라(釋 13:9)

릿고래 수머 거샤(釋 6:4)

이제 語幹末 ㅅ의 용례를 살펴볼 차례이다. 體言과 用言語幹末 ㅅ에는 기원적으로 ㅅ인 것도 있지만 △, ㅈ, ㅊ 어간말음이 자음과 휴지 앞에서 중화되어 ㅅ 중성으로 표기되는 것도 있다. 물론 ‘웃드미오(釋 9:18)’와 같은 形態素 內部的 중성표기 ㅅ도 있다.

a. ㅅ : ㅅ->헛웃 님고 발 ㅅ고(月釋 10:17)

ㅅ >그 ㅅ 못 ㅅ틀 다 ㅅ시니(釋 6:31)

b. △ : ㅅ->헛 머릴 웃느니(杜初 8:57)

열/여수(여스)>열이 獅子 | 아니며(月釋 2:76)

c. ㅈ : ㅅ->넋디 마르쇼셔(龍 110)

ㅅ >꺄과 여름래 가지마다 다르더니(釋 6:30)

d. ㅊ : ㅅ->아래브터 諸佛을 ㅅ즈바(釋 13:60)

ㅅ >누네 ㅅ 보며(月釋 2:15)

다음은 基底形 내지 導出過程의 音節末 위치에서 ㅅ을 포함한 자음군

4) 李基文(1959/1978:66) 참조.

5) 사이시옷이 후속자음과 竝書로 표기되는 경우는 뒤에 오는 어간의 첫자음이 ㅅ, ㅈ이거나 ‘ㄱ, ㅅ장’ 등과 複合助詞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을 이루었던 예들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으면서 종성표기 사만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소위 사이시옷이 개재된 경우는 자음군단순화가 수의적이라 할 수 있고<sup>6)</sup> 어말 스제 합용병서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어간의 예들은 자음어미들 앞에서 규칙적으로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졌다.<sup>7)</sup>

## a. 사이시옷 : ㄹ)→ㅅ

뽕결(杜初 7:14)            뭇결(杜初 18:11)  
 밧바당(楞 2:15)            밧바당(楞 10:79)  
 \*꺾별 꺾별(杜初 18:4)    cf. 꺾별(杜初 18:14)  
 버들고졸(杜初 11:21)    버들고지(杜初 11:18)  
 마룻물(月釋 1:11)        마룻물(杜初 20:15)  
 붓사름(杜初 16:22)      뭇 빛부리(杜重 13:4)  
 싹날(杜初 20:17)        싹동 巴江(杜初 18:5)  
 이튿날(月釋 7:5)        이튿날(釋 6:27)    이튿날(小謔 6:7)

나)→ㅅ

터럭만 善事(月釋 21:122)  
 숲윗 바희담 靑蓮花(月釋 2:31)  
 혼 터럭맛 거시(金剛 4:42)  
 녹외야 터럭마도 업스리라(楞 7:53)

ㄷ)→ㅅ

일흔난 값 子孫(杜初 16:2)  
 내 짓 寶藏(南明上 37)    이웃짓 브른(杜初 7:6)  
 집기습(杜初 1:20)        집따르(杜初 2:27)

b. 語幹末 ㅅ : ㅅ) 밧괴(龍 69)            밧도(蒙 43)  
 닷마면(釋 9:35)            닷더니(法華 1:116)  
 ㄷ) 닷두며(楞 1:26)        닷노라(月釋 8:57-8)

## c. 제 2 자음이 사인 語末合用竝書의 경우 : ㅅ) 값과(月釋 8:94)

ㅅ) 샷과(圓覺上 1-2:14)

6) 李翊燮(1987:122-4) 참조.

7) 본고는 合用竝書와 子音群이라는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여 쓰고 있다. 여기서 표기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語末ㅅ系 合用竝書들은 그 基底形이 子音群 /sk/, /st/인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子音群單純化가 공식적인 음운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4.3을 참조.

b, c의 경우는 4.4.3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먼저 사이시옷 앞에서 ㄷ이 떨어지는 경우를 살펴 보자. 주지하다시피 15세기에도 活用上에서나 單語形成 過程에서 語幹末音 ㄷ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탈락하였다. 먼저 활용에서는, 일종의 音聲的 制約(同器官的 異化)에 의한 ㄷ 탈락으로서 ‘ㄴ, ㄷ, △, ㅅ, ㅈ(-voc, +cons, -grave, -tense)’으로 시작되는 어미들 앞에서 어간말음 ㄷ이 탈락하는 경우와 音節構造 制約에 따른 자음군단순화의 일환으로서 ㄷ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sup>8)</sup>

그러나 複合語 形成에서의 ㄷ 탈락은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9)</sup> 즉 복합어 구조에서의 流音脫落은 ‘ㄷ넝光(月釋 2:51) 들넝끼(曲 83) 벵드리(月釋 8:7) 날돌이(曲 7)’에서처럼 어느 정도 수의 적이다. 이 경우 역시 ㄴ, ㄷ 등의 앞에서의 同器官的 異化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복합어라는 範疇上的 특성이 활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과, 체언어간말음 ㄷ이 特殊助詞 ‘-도’, 複數接尾辭 ‘-들’, 強勢添辭 ‘-ㅅ’ 등의 앞에서 전혀 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복합어에서의 유음탈락이 共時的 音韻現象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몹결/몹결’의 예들도 결국 이상의 複合語 예들과 동계의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즉 사이시옷 앞에서 ㄷ이 떨어진 예들은 ‘ㅅ’이 “제 음가”를 지니고 있던 이전 단계에서 유음탈락 규칙이 적용된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더욱이 용언어간보다는 체언어간에 대해 文法意識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몹결’류의 예가 복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몹/몹’의 경우, 허웅(1975:285-6)에서는 “‘몹’의 경우 ㄴ이 줄어 ‘몹’이 되기도 한다.”고 기술하면서 그러나 ‘몹’은 ‘몹’의 줄임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만’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과 같은 의미의 ‘ㅅ’가 존재하므로 이 형태에 사이시옷이 결합하여 ‘몹’이 출현할 수도 있으므로 자음군단순화의 예가 아닐 수도 있다.

8) 李秉根(1981)의 논의를 참조할 것.

9) 宋喆鏞(1987:330) 참조.

10) 李基文(1972b/1977:34 (주) 6)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ㄷ 탈락이 일어난 시기가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金星奎(1988:13)에서는 聲調 變動과 관련하여 ㄷ이 탈락한 ‘밧바당’은 하나의 단어로 語彙化한 것이고 ‘밧바당’은 두 단어의 결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ㅁ’의 자음군을 형성하는 위의 특별한 예들은 어간달음 ㅂ의 탈락에 대한 음운론적 동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金完鎭(1974:113)에서는 ‘집(宅)’이라는 명사가 선행 단계에서 말음 ㅂ을 가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사이시옷이 기본적으로 선행음절말음이 有聲音일 경우 쓰인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집’의 가능성이 아주 터무니없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IV. 終聲表記 ㅁ의 音價

##### 4.1. 冠形形語尾 ‘ㄹㅁ’

15세기 국어에서 表記上으로 硬音化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冠形形語尾 ‘ㄹㅁ’ 다음에서와 ‘ㅎ’말음을 기저형으로 하는 용언어간에 결합 법선어말어미 ‘-슴/줍-’이 올 때, 그리고 사이시옷의 개재로 인해 합용 병서 ‘ㅅ’이 출현할 때 뿐이다. 먼저 관형형어미 ‘ㄹㅁ’이 쓰인 모습을 살펴보자.

물 흘 거시라(釋 6:38)

갈 띠 업서(釋 6:33)

디날 ㅅ시오(月釋序 2)

이르수불 제도(釋 6:37)

물뵈 거시라(釋 13:37)

값 더 업거든(釋 9:7)

이삼 스이논(月釋 1:49)

도라오삼 제(龍 18)<sup>11)</sup>

이처럼 관형형어미 다음에서의 경음화는 ‘ㄹㅁ+各自並書’型和 ‘ㄹㅁ+單一初聲’型的 두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즉 ㅁ은 訓民正音 解例의 八終聲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종성으로 쓰이고 있는 표기법상의 중요한 예외인 것이다. 宋喆儀(1987:354)에서는 “‘ㄹㅁ+단일초성’형의 경우에 ㄹㅁ을 ㄹㅁ으로 표기하는 방법(ㅁ은 硬音表記에 사용된 바 있고 또 八終聲 속에도 포함되므로), 혹은 후속어의 두음에 맞추어서 ㄹㅁ, ㄹㅁ, ㄹㅁ, ㄹㅁ으로 표기하는 방법(마치 사잇소리를 선행어의 말음과 관련시켜서 ㄱ, ㄷ, ㅂ, ㅍ, △ 등으로 표기했던 것처럼) 등이 가능했음직 한데 이러한 가능한 방법들을 제쳐 두고 어째서 ㄹㅁ이 선택되었는지 명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ㄹㅁ 표기가 漢字

11) 宋喆儀(1987:352)의 예 인용.



音表記 중 ‘以影補來’의 영향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以影補來의 ㄹㅎ이 경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이 ㄹㅎ이 관형형어미로 선택된 이유의 전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본고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왜 ‘ㄹㅎ’이 선택되었나에 있는 것은 아니다. 3.2.2에서 보았듯이 ㄹㅎ 대신 ㄹㅅ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李基文(1959/78:64)에서는 ‘썸, ㅅ름, ㅅ, ㅅ장’ 등이 종성 ㅅ 뒤에서 ‘분, ㅅ름, ㅅ, ㅅ장’ 등으로 표기되는 것은 ㅅ이 후행 초성을 된소리로 실현시키므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잘드르싯분(月釋 2:62), ㅅ름ㅅ장(月釋 1:47)’의 예들<sup>12)</sup>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썸, ㅅ장’이 모두 ㅅㅅ으로 실현되었는데 결국 선행음절말에 이들을 된소리로 실현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ㅎ=ㅅ’이라는 표기상의 등식을 발견하게 된다. 본고는 일단 여기서 종성표기 ㅅ이 나타내는 음가가 어떤 환경에서는 ㅎ<sup>13)</sup>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 본다.

#### 4.2. 사이시옷

李基文(1972b:51)에서는 사이시옷이 先行語 末音의 內破化와 後行語 頭音(ㄱ ㄷ ㅂ ㅈ ㅅ)의 된소리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ㅅ의 이러한 용법은 훈민정음 체계내에서의 문자운용상 증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이시옷이 정확히 어떤 요소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지 않다. 李基文(1972b:51)의 논의대로 內破音 ㄷ 또는 喉頭閉鎖音에 가까운 어떤 발음 상태를 반영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複合語 구성이나 句를 지배하는 冠形格 자리에 쓰이는 형태론적 요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2) 박창원(1991:45-6)에서 인용한 예이며, 여기서 본고와 비슷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13) ㅎ은 喉音의 全消字로서 影母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漢字音表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관형형어미 뒤에서 각자병서들이 나타나고 이들 각자병서는 濁聲이었으니, ㅎ의 음가를 喉頭閉鎖音 [ʔ]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사이시옷이 출현하는 음운론적 환경은 선행음이 有聲音일 때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즉 선행음이 無聲音인 경우 사이시옷은 원칙적으로 출현하지 않아야 하나, 그런 위치에 사이시옷이 쓰인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sup>14)</sup> 다음 예들을 참고해 보자.

말 거체 브느니라(月釋序 10)

입 거체 브는 字 | 라(月釋序 9)

깊 일 던디하야(釋 24:4)

또한 일반적으로 사이시옷이 쓰일 법한 자리에 사이시옷이 빠진 예들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후행음이 유성음이고 선행음은 자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15)</sup>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李翊燮(1987:124)에서는 “사이시옷이, 과잉으로 쓴 경우나 잘못 빠뜨린 경우나, 형태론적으로는 쓰일 자리이지만 발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즉 사이시옷의 발음이 不破音 [ㄷ]이라면 음성적으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에서 빠지기도 하고 과잉으로 덧붙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결론지으면서 적어도 사이시옷은 [s]음가는 갖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이시옷의 음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소위 合用竝書로서의 ‘ㅅ’이다. 우선 15세기 국어에서 ㅅ이 출현하는 환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各自竝書——語頭：싸호는 한 쇼톨(龍 87)

——冠形形語尾 ㄷ 뒤：디날 ㅅ시오(月釋序 2)

合用竝書——사이시옷：ㄱ는 엄쏘리니(訓諺 4)

——謙讓法 先語末語尾 앞：일후를 저ㅅ바놀(龍 61)

여하튼 ㅅ은 東國正韻 序에 의거한다면 濁聲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더욱이 관형형어미 ㄷ 뒤에서 나타나므로 그 음가가 된소리 /s'/임을 의심할 수 없다. 결국 ‘니쏘리’와 같이, 종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이시옷이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 합용병서로서의 ‘ㅅ’을 이루는 경우, 우리는 ‘니쏘리’의 ㅅ이 ‘싸호’의 ㅅ의 음가와 다르다는 그 어떤 결정

14) 이 예들은 李翊燮(1987:122-3)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5) 李翊燮(1987:123)의 예들을 참조.

적 증거도 낼 수 없으므로 합용병서로서의 ㅅ도 [s']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시옷이 중성으로 남아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술윗소리(釋 19:14)’의 중성표기 ㅅ도 ㅎ[?]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성표기 ㅅ의 음가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문제거리이며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했던 사이시옷은 어쨌거나 초성 ㅅ 즉 마찰음 /s/와 等價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적은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사적 맥락에서 사이시옷이 나타내는 음가는 구체적으로 ㅎ일 것이라고 본다.<sup>16)</sup> 다음 예들은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시사적이다.

- |                |               |
|----------------|---------------|
| a. 드룡象(楞 3:10) | 드룡數(月釋 8:40)  |
| 닫겨체(月釋序 10)    | 맑쁘디(月釋 17:33) |
| 하늬고졸(釋 23:40)  | 하늬뜰(龍 4)      |
| 숭바솔(龍 89)      | 숭진(救急方下 63)   |
|                | 숭진(月釋 8:10)   |
| b. 先考ㅎ 뜰(龍 12) |               |
| 虛형ㅎ 字중(訓諺 8)   |               |

a의 예들은 사이시옷이 쓰일 자리에 ㅎ이 쓰인 예들이고,<sup>17)</sup> b의 예들은 喻母 ㅎ이 중성으로 쓰인 한자어의 경우 사잇소리로서 ㅎ이 사용된 경우이다. 현실한자음과 관련해서 본다면 모음 뒤에 사잇소리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3. 謄讀法 先語末語尾가 연결된 경우

4.3.1.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가운데 검양법 선어말어미는 어간 형태소의 말음에 따라 다양한 異形態로 交替 樣相을 보여준다. 이 선어말어미는 開放的인 先語末語尾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간 형태소에 직접 통합될 수 있어 중성표기 ㅅ의 음가를 추정함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 먼저 검양법 선어말어미가 통합되었을 때의 이

16) 龍飛御天歌, 訓民正音諺解에서는 선행어의 말음과 관련하여 ㄱㄷㅂㅅㅁㅌ ㅎ 등으로 표기되었다. 반면 訓民正音解例에서는 ‘ㅅ’으로 통일하고 있다.

17) 冠形形 ㄹㅎ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세국어에서 屬格形과 冠形形의 구별이 얼마나 엄격할 수 있었나 하는 점이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형태 교체 양상을 몇 예만 들어 살펴보자.<sup>18)</sup>

첫째, 선행 어간형태소의 말음이 모음이나 ㄴ, ㄷ, ㄹ<sup>19)</sup> 등일 때는 ‘-을-’과 統合關係를 형성한다.

- (모음) 塔에 ㅁ초수받니(曲 64)
- (ㄴ) 采女ㅣ 기비 안수하(曲 23)
- (ㄷ) 維那를 삼수보리라(月釋 8:79)
- (ㄹ) 天下ㅣ 아습고(曲 34)

둘째, 선행 어간형태소의 말음이 ㄷ, ㅌ, ㅈ, ㅊ, ㅍ 등일 때는 ‘-줄-’과 結合한다.

- (ㄷ) 님금사말 아니 듣조바(龍 97)
- (ㅌ) 곧 如來와 곧쥬느니라(楞 2:45)
- (ㅈ) 부더를 맛조바 저습고(月釋 1:13)
- (ㅊ) 아래부터 諸佛을 좃조바(釋 13:60)
- (ㅍ) 太子ㅅ겨퇴 안쪄받시니(曲 46)

셋째, 선행 어간형태소의 말음이 ㅂ, ㅃ, ㄹ, ㅍ, ㅅ, △, ㄱ, ㄴ, ㄷ, ㅌ, ㅈ, ㅊ 등일 때에는 ‘-술-’과 통합한다.

- (ㅂ) 接引 후샤를 님스바(釋 11:8)
- (ㅃ) 大耳兒를 臥龍이 돕스받니(龍 28)
- (ㄹ) 굽소오리 업스샤미(法華 2:17)
- (ㅍ) 報國은 나랏 恩惠를 감스볼씨라(三綱忠 22)
- (ㅅ) 阿難과 羅雲은 마쳐 셋습더니(月釋 10:10)(ㅅ-+~어+인-)
- (△) 머리를 좃스받니(龍 95)
- (ㄱ) 欲心을 막스받니(曲 47)
- (ㄴ) 御前에 翻譯 님스오니라(楞跋 4)
- (ㄷ) 諸天이 다 깃스받니(曲 13)
- (ㅌ) 摩耶ㅣ 始來를 나췌받실씨(月釋 21:222)
- (ㅊ) 설허 술췌보대 이서(月釋序 10)

18) 후행 語尾形態素의 頭音에 따라 ‘-을/습/줄-’의 말음변이 비으로 교체되는 예들은 본고의 논의와 큰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19) ㄹ은 ‘-을-’ 앞에서 필수적으로 탈락하므로 문면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流音脫落과 관련된 논의는 3.2.2를 참조할 것.

실제로 이제까지 이 선어말어미의 결합과 관련된 음운론적 현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中和를 거친 종성표기만을 기준으로 통합 양상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어간형태소 말음을 밝혀 보았다. 이상의 통합 양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語幹形態素末音	終聲表記	先語末語尾
ㄴ, ㄷ, ㄹ 모음	ㄴ, ㄷ	ㅇ
ㅂ, ㅃ, ㄹ, ㅍ, ㅅ, ㅆ, ㅈ, ㅊ, ㅋ, ㆁ, ㄷ, ㄷ, ㄷ, ㄷ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ㅅ
ㄷ, ㅌ, ㅈ, ㅊ, ㅊ	ㄷ, ㅅ, (ㄴ)	ㅈ

4.3.2. 謙讓法 先語末語尾의 統合 樣相은 中世國語의 音節末 子音體系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나, 명백한 근거가 되기에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이 선어말어미의 통합을 通時的인 制約으로 보느냐 共時的인 交替로 보느냐의 문제부터 제기된다. 먼저 박창원(1984)에서는 겸양법 선어말어미의 교체가 調音方法에 의해 우선 구분(‘-ㅅ-’과 ‘-ㅅ/ㅈ-’) 되고 그 다음 調音位置에 의해 ‘-ㅅ-’과 ‘-ㅈ-’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15세기의 중화 방향과는 달리 ㅈ, ㅊ이 ㄷ과 같이 ‘-ㅈ-’을 통합시키고 ㅎ이 ‘-ㅅ-’을 통합시키는 것을 일종의 形態論的 制約으로 처리하였다. 즉 이러한 선어말어미의 통합 양상은 ㅈ, ㅊ, ㅎ이 ㅅ이나 ㄷ으로 중화하기 이전, 다시 말해 “제 음가”대로 실현되던 15세기 이전의 음절말 자음체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 15세기에서의 중화 방향과 관련해서 예외를 이루게 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金周弼(1988:210-11)에서는 ㅃ과 ㅆ이 ㅂ과 ㅅ으로 중화된 후 ‘-ㅅ-’을 선택하므로, ㅈ, ㅊ이 ‘-ㅈ-’을 선택하는 것도 ㅈ, ㅊ이 ㄷ으로 중화된 후 ‘-ㅈ-’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 선어말어미의 교체를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겸양법 선어말어미 앞에서 어간말음이 중화를 먼저 겪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려면 金周弼(1988:219)의 ‘우리는 {-ㅅ-}이 먼저 선행하는 음의 유무성에 따라 ‘-ㅅ-’과 ‘-ㅅ-’으로 교체되었고, 다시

어간말 ㄷ, ㅈ, ㅊ의 [tʰ]로의 중화에 따라 ‘-슴-’에서 ‘-졸-’으로 분화되었다.”라는 논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즉 어간형태소 말음 붕괴 △이 ‘-슴-’을 통합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선어말어미의 통합에 앞서 음절말 위치에서의 중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sup>20)</sup>

4.3.3. 본고는 어간말 ㅈ, ㅊ이 겸양법 선어말어미 앞에서 ㄷ으로 중화되었다는 논의<sup>21)</sup>를 단순히 받아들이기에 앞서 다음 混記例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               |                |
|-----------------|---------------|----------------|
| a. 좃즈바(釋 13:59) | 좃느니(月釋 9:23)  | cf. 좃즈뵤니(韻 55) |
| 조짜바(月釋 2:28)    |               |                |
| 죇즈바(釋 13:45)    | 죇즈와(圓覺上 1:24) |                |
| b. 엇고(釋 6:30)   | *엇좁-(엇-)      |                |
| 연좁고(月釋 2:73)    |               |                |
| 연좁고(月釋 10:10)   |               |                |

李翊燮(1992:315)에서는 이들 예들을 ‘곁又(楞 6:99)/곁근(楞 10:62)’와 궁극적으로 다를 바 없는 混記라고 보아, 결국 동일한 발음의 세 다른 표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들 예가 종성표기 ㅈ(ㅈ, ㅊ이 중화되어 표기된 것까지 포함하여)의 음가를 가장 정밀히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왜 ‘-졸-’이 선택되었는가의 문제보다는 세가지 표기 형태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좃즈바’의 ㅈ의 음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어표기로서의 각자병서 ‘ㅈ’이 쓰이는 ‘조짜바’의 표기가 아마도 ‘좃-+-졸-’의 결합에서 실현되는 발음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15세기 국어의 표기 체계에서 종성 ㅈ은 초성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므로 ‘좃즈바’의 경우 ‘조짜바’에 이르기 전

20) ‘웅보니(月釋 7:1)’의 경우는 △이 ㅈ으로 중화된 후 ‘웃보니(曲 176)’로 문면에 나타나지 \*웃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謙讓法 先語末語尾의 경우와는 달리 어간말음의 中和 전에 派生接尾辭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는데, 결국 ‘웅보니’가 현실적인 발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파생이라는 범주상의 특성이 ‘-슴-’의 통합과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21) 본고는 金周弼(1988)에서와는 달리 겸양법 선어말어미와의 통합양상만으로 形態首素 ㅈ, ㅊ에서 유래된 모든 ㅈ종성이 ㄷ으로 중화되었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에 ‘\*조쯔바’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ㅅ의 된소리가 15세기 국어 어두에서 발견되지 않고 훈민정음 체계내에 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병서 ㅅ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본고는 形態音素 ㅅ, ㅅ을 가진 중성표기 ㅅ의 음가를 [ʔ]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준쯔바, 연줍고’의 경우는 [ʔ]이 [tʰ]로까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논의는 ‘눅쯔스(月釋 1:13)/눅쯔스(釋 11:21)/눅쯔스(楞 7:28)’과 같이 사이시옷이 ㄷ으로 표기된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용언어간말 ㅅ, ㅅ이 결양법 선어말어미 앞에서는 ㄷ과 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4. 金周弼(1988)의 논의는 중성표기 ㅅ의 음가와 관련하여, 더 나아가 중세국어 음절말 자음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흥미있는 논의였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ㅅ, ㅅ이 결양법 선어말어미와 통합함에 있어서 ㄷ과 동일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과 똑같은 무게를 지닌 다른 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어간형태소 말음이 ㅎ인 경우 15세기의 중화 방향이 ㄷ이었다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ㅅ과 함께 ‘-술-’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간말음 ㅎ은 無聲破裂音이나 破擦音(ㄱ, ㄷ, ㄴ, ㅅ)과 만나면 그것과 결합하여 有氣音을 형성하고 無聲摩擦音(ㅅ)을 만나면 硬音을 형성한다. 그리고 鼻音 ㄴ을 만나면 일단 ㄷ으로 中和되고 中和된 ㄷ은 수의적으로 ㄴ 앞에서 ㄴ으로 同化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ㅎ→ㄷ’으로의 중화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라고 하는 매우 한정된 환경에서만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 ㅎ, ㄱㅎ말음을 가진 용언들의 활용형을 한번 살펴보자.<sup>22)</sup>

a. ㅎ저ㅎ니(龍 59) (정-)	노티(杜初 8:32) (농-)
것스오며(楞 7:28)	눅스와(眞供 42)
저쓰하(龍 75)	노삽고(月釋 7:24)
절느다(南明上 54)	눅노니(月釋 13:19)
전느(法華 4:23)	눅느다(杜初 22:20)

22) 이들 예에 대해서 金周弼(1988:216)에서는 音節末 ㅎ에 대한 표기가 八終聲內的 어느 한 자음으로 고정되지 않았고, 뒤에 오는 음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ㅎ의 음성적 특징 때문에 빚어진 혼기라고 보았다.

cf. 다나니라(訓諺 15)      더난(釋 19:14)

b. ㄹㅎ&gt;술타니(杜初 22:30) (술-)

술곡사(曲 61)

술삭보매(月釋序 10)

술노니(杜初 7:16)

술나니(楞 2:9)

먼저 어간형태소 말음이 ㅎ인 경우, 곁양법 선어말어미 ‘-술-’이 통합되었을 때 종성표기 ㅅ의 음가가 [ʔ]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젓스오며/저싸바’ 등의 예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음 ㅅ, ㅈ의 경우와는 달리 ㄷ으로의 중화가 완전히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젓스오며/\*논스와’ 등의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곁양법 선어말어미의 결합이 어간말음의 중화 이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즉 ㅎ이 ㄷ으로 완전히 중화된 뒤라면 결국 ‘-줄-’이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곁양법 선어말어미 앞에서 ㅎ이 ㅎ으로 중화되어 ㅅ을 표면에 드러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語幹末音 ㅎ과 語尾頭音 ㅅ이 만났을 때 ㅅ이 출현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었다. 첫째는 ㅎ이 ㅅ 앞에서 ㅅ으로 동화된 후 연철되어 ㅅ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보는 경우<sup>23)</sup>이고, 둘째는 ‘ㅎ+ㅅ’이 /sʰ/가 될 것인데 摩擦音의 有氣音은 體系上的 빈칸이므로 그와 가장 가까운 ‘ㅅ’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sup>24)</sup> 이 두가지 견해는 음절말 위치에서 ㅎ이 결코 문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音素的 原理에 충실했던 당시의 表記體系內에서 지나치게 形態音素 ㅎ에 집착했던 견해들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문면에 드러난 표기만을 근거로 곁양법 선어말어미 ‘-술-’ 앞에서 어간형태소 말음 ㅎ은 ㅎ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이와 같은 논의는 b의 예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ㄹㅎ’이 어간형태소 말음인 경우도 ㅎ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절탈 위치에서 두번째 자음 ㅎ이 표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23) 김병욱(1982:131) 참조.

24) 李丕宰(1980:38)에서는 중세국어론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는 없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의 流音化 현상과 관련된 예들에서 ㅎ의 흔적을 엿볼수 있을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국어의 대표적인 子音同化는 鼻音化와 流音化를 들 수 있는데 15세기 문헌들에서는 이들 동화 현상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음화의 예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꺄--ㅅ--ㄴ→꺄ㄴ(月釋 1:29) cf. 꺄--ㅅ--ㄴ→꺄ㄴ(敎要 6)
- 꺄--ㅅ--ㄴ→꺄ㄴ(杜初 8:7) 꺄--ㅅ--ㄴ→꺄ㄴ(楞 2:9)
- 꺄--ㅅ--ㄴ→꺄ㄴ(月釋 2:9)
- 꺄--ㅅ--ㄴ→꺄ㄴ(楞 1:62) 꺄--ㅅ--ㄴ→꺄ㄴ(楞 2:2)
- 꺄--ㅅ--ㄴ→꺄ㄴ(月釋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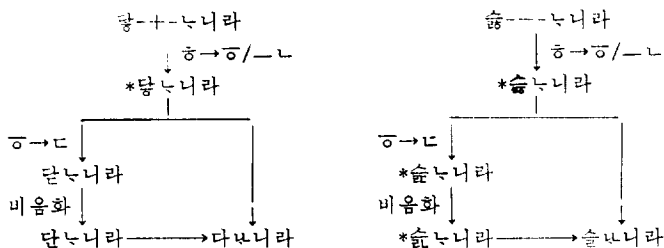
이처럼 표기상으로는 형태음소 ㄴㅎ을 가진 용언의 활용에서 유음화가 실현되는 예가 보이지 않는데,<sup>25)</sup> 본고는 이상의 예들에서 두가지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ㄴㅎ 발음에서 ㅎ이 완전히 탈락해서 ㄴ만이 남았다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ㄴ이 탈락해야 하는데(ex. 꺄--ㅅ--ㄴ→꺄ㄴ(釋 13:10))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ㄴㄴ’의 표기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첫번째 경우는 현대국어에서 ㄷ 變則用言의 경우를 상기시킨다.<sup>26)</sup> ‘실-’의 활용형 ‘실는’의 경우 [신는]과 [실ㄴ]이 모두 가능한데 [실ㄴ]이라는 실현형은 실제로 형태음소 ㄴㅎ을 가진 경우(ex. 꺄--ㅅ--ㄴ→꺄ㄴ)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ㄷ 변칙용언의 발음이 환경에 따라 [tʰ]로도 혹은 [pʰ]로도 실현됨을 보이는 것이다. 즉 ㄷ 변칙용언의 발음이 표기상으로는 ‘실어서, 실으니’와 같이 종성 ㄴ만을 보여도 거기에는 ㄴ계 어미 앞에서 ㄴ을 탈락시키지 않고 유음화를 일으키는 어떤 子音的 要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꺄ㄴ, 꺄ㄴ, 꺄ㄴ’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둘째는 ‘ㄴㄴ’의 표기인데 이들은 어간형태소가 ㅎ으로 끝나는 용언

25) 宋喆儀(1987:350)에서는, 語尾形態素에 대해서까지 그 基本形을 인식하여 流音化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15세기 국어에서는 流音化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26) ㄷ 變則用言에 대한 논의는 崔明玉(1985), 韓英均(1985), 金星奎(1988) 등을 참조.

의 활용형이 비음화를 겪는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생각은 ㅎ을 포함하고 있는 ㄱㅎ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냐니라, 슬냐니라’와 같은 表面形, 즉 표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슬냐니라’의 경우는 ㅎ 말음어간과 거의 평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한가지 ‘\*슌냐니라’와 같은 표기를 접할 수 없으므로 ㅎ 말음의 경우와는 달리 표기상으로 ㅎ이 ㄷ으로 중화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슌냐니라, \*슌냐니라’와 같은 導出過程의 상정은 ㄷ이나 ㄴ 앞에서 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制約條件을 가해야 한다.<sup>27)</sup> 따라서 본고는 여기서 ㅎ이 겸양법 선어말어미 ‘-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ㅎ으로 중화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각자 병서 ‘냐’에 대해 ‘ㄱ, ㄷ, ㅂ, ㅅ, ㅈ’과 동등한 설명을 부과할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의 도식을 한번 보자.

흥겨시라 : \*슌냐니라  
 흥겨시라 : 슬냐니라

물론 ‘冠形形+形式名詞’와 ‘用言語幹+先語末語尾’라는 文法的 構造上的 차이는 있지만 표기법상의 원리는 동일한 것이다. ‘ㄱㅎ+單一初聲’형이나 ‘ㄱ+各自竝書’형이나의 차이인데 ㅎ 어간말음까지 포괄하자면 ‘ㅎ+單一初聲’型和 ‘各自竝書’型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고는 ㄱㅎ어간말음이 ㄴ계 어미 앞에서 ㄱㅎ으로 실현되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각자 병서 ㄴㄴ이 문면에 드러날 수 있었던 확실한 근거도

27) 流音脫落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어간형태소 내부인 ‘\*슌-, \*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밝힐 수 있게 되었다.<sup>28)</sup> 본고의 이와 같은 논의는 비록 유일 예이기는 하나 다음의 두 표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우를 **활**느니(楞 8:5) (활-)

한 **훤**이 두러이 **잃**호시니라 **잃**호조오니(楞 4:59) (잃호-)

‘활느니’의 경우는 우리가 추측하였던 도출과정의 ‘\*숄느니라’와 동일한 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15세기의 어간은 ‘활-’로 보인다. 다음으로 ‘잃호-’의 경우는 보통 ‘일호-/일호-’로 교체될 보이는 것인데 李基文(1971)에서는 이 용언이 動名詞形으로 추측되는 ‘일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간 ‘\*잃-’과, 어간 ‘호-/호-’의 복합어인 것으로 보았다. 이때 문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잃-’의 모습을 ‘잃호조오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이상의 장황한 논의에서 이끌어 내고자 한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형태음소 **ㅎ**이 중성 **ㅅ**으로 표기되는 ‘젓소으며, 낫소와’의 경우, **ㅅ**의 음가가 **ㅎ**임을 밝히고 싶었다. 물론 ‘걸느다, 놀노니’의 표기를 염두에 둔다면 부분적으로 **ㅅ**으로까지 중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국어에 이르러 어간형태소의 말음이 **ㅅ**인 경우에도 ‘-술-’을 통합하게 되는데(삼수보리라(月釋 8:79) > 삼습새(新語 3:9)), 아마 그 이유도 **ㅅ** 다음에서 **ㅅ**이 硬音化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ㅎ**[?]의 출현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4. 語幹末 ㅅ의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본고는 終聲表記 **ㅅ**이 **ㅎ**과 等價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緒論에서 밝혔듯이 본고는 15세기의 音

28) 宋喆儀(1987:350-51, (주) 15)에서는 어간말음**ㅎ**이 어떤 식으로든 음절말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여 ‘디날’과 같은 식으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29) 李翹鸞(1992:72-4)에서는 이들 예들을 **ㅎ**이 誤用된 경우로 보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잃호매(楞 2:3)’, ‘잃호조와(楞 3:115)’의 경우를 보면 **ㅎ**이 후행 有氣音의 緊張性を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節末 子音體系에서 /s/과 /t/의 對立이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s의 內破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訓民正音이 창제되었던 것이다. 표기상으로는 매우 정연했다고 할 수 있는 /s/과 /t/의 대립이 15, 6세기의 交替期에 곧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도 우리의 논의를 지지해 주는 듯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曆輕音 ㅁ이 소실되기 직전에 그 모습을 15세기 문헌들에 남겼듯이, /s/과 /t/의 대립도 그 마지막 모습을 당시의 문헌들에 남기고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한다. 순경음 ㅁ이  $\beta > w > \phi^{30}$ 라는 段階的인 音韻變化를 거쳤듯이 음절말 위치에서의 /s/도 /t/을 거쳐 /t/으로 中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 체계 안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던 까닭에 주목을 받았던 ㅁ과 ㅌ이 여기서 다시 한번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은 흥미롭다. 즉 訓民正音의 初聲體系에 포함된 喉音의 全清子 ㅁ은 국어 표기의 초성으로 쓰이지 않았고 실제로 解例 用字例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 ㅁ은 解例 用字例에서 국어 초성의 하나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훈민정음의 17초성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중세국어의 모든 위치에 쓰인 중성표기 시이 ㅁ을 나타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ㅌ으로 완전히 중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위 “제 음가”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본고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변화의 와중에 있는 어떤 언어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태도라고 믿는다. 4.3까지의 논의에서 거론되었던 예들은 본고가 판단하기에 시이 ㅁ으로 실현되었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중성표기 시이 쓰인 모든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혹은 ‘變化의 端初’를 보인 경우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중성 시이 ㅁ으로 실현되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는 예들을 분류하여 제시해 보겠다. 여기서 한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중성표기 시이 ㅁ이나 더 나아가 ㅌ으로 중화한 것이 아니고 “제 음가”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았을 때, 그 실제 발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본고는 慧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소위 內破的 [s]인지 아니면 外破的 [s]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음성 실현인지

30) 줄고(1991:123)에서  $\beta$ 는 단순한 w로 변환 것이 아니라 ‘ $\beta w$ ’ 내지는 ‘ $\beta w$ ’로 변환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단언하기엔 자료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필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어쨌거나 음절말 위치에서 /ㅅ/과 /ㄷ/이 구별되었을 가능성은 國語史의 어느 시기엔가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둔다.

4.4.1. 基底形 /ㅅ/의 경우

표기상으로 종성ㅅ일 뿐 아니라 그 기저형이 /ㅅ/인 경우로, 語幹末과 形態素 內部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                 |                |
|-----------------|----------------|
| a. 옷과(曲 7)      | *오와            |
| 깃더니(月釋 1:45)    | *지쳐니           |
| b. 옷드미오(釋 9:18) | 으스물(法華 1:7)    |
| 엇베(釋 6:9)       | 어세(月釋 7:17)    |
| 앗기료(月釋 7:28)    | 아끼노라(杜初 23:32) |
| c. 어엇비(訓諺 2)    | 어어췌(釋 11:18)   |

a의 경우, 어간말 ㅅ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결코 후행 초성으로 연결되어 ㅅ계 합용병서를 이루지 않는다. 반면 b와 같은 명사, 부사 및 동사 형태소 내부에서나, c처럼 派生接尾辭가 결합된 경우에는 ㅅ이 종성표기로도 쓰이고 후행 초성에서 합용병서를 이루기도 한다.

4.4.2. 基底形/△, ㅈ, ㅊ/이 /ㅅ/으로 中和 表記된 경우

- |                |                 |
|----------------|-----------------|
| a. 꾀도(釋 11:2)  | *고췌             |
| 췌고(杜初 15:32)   | *조췌             |
| b. 엇이(月釋 2:76) | cf. 엇이(楞 2:3)   |
| 여수논(法華2:111)   |                 |
| 웃고(杜初 7:13)    | *우췌             |
| 웃보니(曲 176)     | cf. 웃느니라(曲 61)  |
|                | cf. 웃보니(月釋 7:1) |

a의 경우는 형태음소 ㅈ, ㅊ이 ㅅ으로 중화된 후,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종성 ㅅ이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b는 △을 어간 형태소의 말음으로 가진 체언과 용언의 屈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용언의 경우는 ㅅ으로 중화된 뒤 ‘\*우췌’와 같은 표기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으나, 체언의 경우는 非自動的 交替를 보이므로 자음어미

앞에서 중성 사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알 수 없다.

#### 4. 4. 3. 子音群單純化의 경우<sup>31)</sup>

4. 4. 3. 1. 훈민정음 체계내에서 비록 語末合用竝書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ㄹ, ㄴ, ㄹ’ 등 크게 합용병서 이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중 특이한 예외라고 할 만한 것은 체언어간말의 ‘ㄱ, ㅂ’으로, 이들은 크게 아님에도 자음군단순화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표기되고 있다.

a. 값과(月釋 8:94)	*값짜
샛과(圓覺上 1-2:14)	*샛짜
낙바불(杜初 16:19)	*낙싸불

이들은 제 2 자음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이 제 1 자음으로 가진 ‘ㄱ, ㄴ’에서는 ㄱ과 ㄴ을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탈락<sup>32)</sup>시키고 있어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용언어간말음 ‘ㅂ’의 경우에는 사이 항상 탈락(ex. 업거늘, 업더니)시키고 있어 더욱 흥미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a의 예들도 제 2 자음 사이 후행음절로 넘어가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a의 경우와 평행적인 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이 제 2 자음으로 가진 예들이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자.

b. 안고(曲 185)	안쇼(釋 11:1) (안-)
안꺼늘(釋 6:30)	안꺼늘(釋 24:44)
안디(金家 2:55)	안저(金三 2:16)
c. 숲기고(月釋 21:45)	숲끼노라(杜初 8:59) (숲기-)
답가오물(楞 4:64)	답싸와(楞 2:31) (답감-)
답겨(月釋 17:16)	답싸샤(釋 11:20) (답기-)
넋디머(月釋 13:7)	넋저면(楞 9:54) (넋디-)
	cf. 넋싸머(楞 8:102)

b의 예는 어간말 거저형 /ㄴㄱ/의 사이 사으로 중화되어 ㄴ사의 표기

31) 語幹末 子音群의 제 1 자음이 無聲障礙音일 때는 제 2 자음이 탈락하고, 제 1 자음이 ㄱ, ㄴ, ㅁ일 때는 子音群單純化가 적용되지 않는다.

32) 4. 4. 3. 2 참조.

를 보인 경우인데, 제 2 자음 사이 후행 초성으로 넘어 가기도 하는 것이다. c의 경우는 기원적으로는 派生接尾辭가 결합된 경우로 보이나 중세국어 당시에는 하나의 어간형태소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시 종성 ㅅ으로도, 초성 ㅅ으로도 쓰이고 있다.

4. 4. 3. 2. 이번에는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 보자.

- |                |               |              |
|----------------|---------------|--------------|
| a. 밧긔(龍 69)    | 마씨하(月釋 1:23)  |              |
| 밧도(蒙 43)       | *마쑈           | 밧만(月釋 18:32) |
| 밧ㄷ면(釋 9:35)    | 다씨라(月釋 7:14)  |              |
| 밧더니(法華 1:116)  | *다씨니          | 밧는(月釋 2:14)  |
| b. 밧ㄷ며(楞 1:26) | *마씨며          |              |
| 밧노라(月釋 8:57-8) |               |              |
| 밧디시고(月釋 1:5)   | 마씨노라(釋 11:14) |              |

a의 경우는 시을 음절말 기저형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과 용언의 경우인데, 모음어미 앞에서는 ㅅ이 종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후행 초성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자음어미 앞에서는 결코 ㅅ이 후행 초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b의 경우는 파생접미사 ‘-이-’와의 결합에서만 유일 예로서 ‘마씨노라’와 같은 어중 ㅅ계 합용병서의 표기를 보이고 있다.

4. 4. 의 예들을 검토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ㅅ의 표기 위치가 형태소 경계와 큰 관련을 갖지 않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종성과 초성의 위치를 넘나든다는 사실이다.<sup>33)</sup> 活用形이나 曲用形에서보다 한 형태소의 내부라든가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에 주로 ㅅ계 합용병서가 나타난다는 점이 이와 같은 논의를 지지해 줄 것이다. 4. 4. 3. 1의 b는 形態素 境界를 넘어 후행하는 자음어미와 병서를 이룬 대표적인 경우일텐데, ㅅ이 ㅎ으로 실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일 것이다.<sup>34)</sup> 물론

33) 李翊燮(1992:200)에 의하면 ㅅ의 표기 위치는 形態論的인 조건과 音韻論的인 조건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하였다. 形態素의 境界를 지키려고 한 다든지 후속 형태소의 自立性의 정도에 좌우된다든지 하는 것은 형태론적인 영향일 것이고, 謙讓法 先語末語尾의 통합에서 알 수 있듯이 후속되는 자음이 ㅅ이나 ㅈ일 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한 것일 것이다.

34) 어간말음/ㄴㅈ/이 자음군단순화를 먼저 겪어 ㄴ만이 남았다고 본다면 ㅅ이 ㄴ의 내과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중에서 사계 합용병서를 수의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상의 모든 예들은, 어두 사계 합용병서가 된소리라는 가설만 받아들인다면 된소리로 실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중성표기 ㅅ이 ㅎ이라는 결론을 내리게끔 한다. 그러나 후행하는 자음어미 앞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수의 중성표기 ㅅ은 여전히 그 음성적 실체를 숨긴 채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이다.<sup>35)</sup>

끝으로 두가지 예들의 경우를 살펴면서 이번 장의 논의를 마무리 지을까 한다. 먼저 ‘몫결/뭇결’의 교체를 15세기 국어의 共時論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외파적 [s] 앞에서 ㄱ이 탈락했다고 보기에는 이런 류의 예들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즉 ‘숯바술, 하얏별’과 같이 사이시옷 앞에서 ㄱ을 유지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뭇결’은 語彙化된 예로, 선행 어간형태소가 복원된 ‘몫결’과 雙形(doublet)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이시옷의 음가가 ㅎ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지만 어휘화된 ‘뭇결’의 중성 ㅅ의 음가에 대해서까지 속단을 내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뭇결’류의 예들은 \*ㅁ스별’과 같이 중성 ㅅ이 연철되는 경우가 결코 없는 데, 이것은 선행 어간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한 까닭이겠지만 ㅅ의 음가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가지는 基底形에서 /ㅅ/, ㅅ/子音群을 가지는 용언의 교체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모음어미 앞에서 중성 ㅅ이 후행 초성으로 연철되어 어중에서 사계 합용병서를 이룬다는 사실은 ㅅ, ㅅ이 [k'], [t']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음어미 앞에서의 중성표기 ㅅ은 그 음가가 무엇이든 모음어미 앞에서의 실현형과 非自動的 交替를 이루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ㅅ이 병서되는 표기들을 무시하고 어간말 /ㅅ/, ㅅ/의 子音群單純化가 15세기의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간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음군의 첫 자음인 ㅅ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李翊燮(1992)의 제Ⅱ부 5장의 논의를 보면 중성표기 ㅅ은 초기 몇 문헌을 제외하면, 또 ㅅ이 단일 형태소의 일부로 인식되는 ‘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중성으로 표기되는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보았다.



## V. 結 論

본고는 지금까지 15세기 국어의 音節末 /ㅅ/이 內破化를 겪는 道程일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終聲表記로 쓰인 모든 위치의 ㅅ이 과연 동일한 음가를 나타낸 것일까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았다.

冠形語尾 자리에 쓰인 終聲 ‘ㅅ’, 사이시옷, 종성표기 ㅅ을 갖는 用言語幹에 謙讓法 先語末語尾 ‘-슴/중-’이 통합되는 경우 등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 쓰이는 종성표기 ㅅ이 ㄷ과 等價임을 의심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語中 合用並書로서 ‘ㅅ’이 출현하는 경우 語頭의 各自並書 ‘ㅅ’과의 동질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고의 결론에는 다음 두가지 사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종성표기 ㅅ이 나타내는 음가 중에는 ㄷ으로의 변화에 이르는 중간 단계로서의 ㅅ이 분명 존재한다 하더라도, “訓民正音의 편찬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의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sup>36)</sup> 주지하다시피 ㅅ은 訓民正音의 17初聲體系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국어표기를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사이시옷의 음가가 관형형 ‘ㄷㅅ’의 ㅅ의 음가와 같다고 느꼈다면 결코 ‘ㅅ’을 屬格 구성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이 문헌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는 사실이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ㅅ으로의 실현을 확인할 수 없는 종성표기 ㅅ의 음가가 무엇인지를 音聲學的 立場에서 보다 정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國語 內破化의 進行 過程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인지도 모른다.

결국 15세기는 國語의 音節末 子音體系에서 /ㅅ/과 /ㄷ/의 對立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6) 李翊燮(1987:120)에서는 종성ㅅ과 ㄷ이 동일한 음의 다른 두 표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ㅅ이 받침 자리에서 ㄷ과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은, 포이 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일만큼 쉽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觀念的으로 종성 ㅅ과 ㄷ을 구별하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 參 考 文 獻

- 金京芽(1991) “中世國語 喉音에 대한 一考察,” 金完嶽先生回甲紀念論叢『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 김병옥(1982) 국어음운체계 변천에 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 金星奎(1988a) “聲調의 再構方法,” 국어국문학 100.
- \_\_\_\_\_ (1988b) “非自動的 交替의 共時的 記述,” 冠嶽語文研究 13.
- 金完嶽(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震檀學報 38.
- 金周弼(1988) “中世國語 音節末 齒音의 音聲의 實現과 表記,” 國語學 17.
- 박창원(1984) “중세 국어의 음결말 자음 체계,” 國語學 13.
- \_\_\_\_\_ (1987) “15세기 國語의 音節境界,” 震檀學報 64.
- \_\_\_\_\_ (1991) 국어자음군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宋喆儀(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의 考察,” 國語學 16.
- 安秉禧(195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의 研究, 塔出版社.
- \_\_\_\_\_ (1968)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ㅅ’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 劉昌惇(1985, 六版)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 李觀洙(1986) “ㄷ, ㅅ 終聲에 대하여,” 若泉金敏洙教授華甲紀念『國語學新研究』, 塔出版社.
- 李基文(1959/78)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塔出版社.
- \_\_\_\_\_ (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_\_\_\_\_ (1963) 國語表記法의 歷史的 研究, 韓國研究院.
- \_\_\_\_\_ (1971) “語源 數題,”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一潮閣.
- \_\_\_\_\_ (1972a)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1978)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 \_\_\_\_\_ (1972b/77)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 4.
- 李丞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 45.
- 이은경(1986) “8종성에서의 ‘-ㅅ’에 대하여,” 한글 192.
- 李翊燮(1987) “音節末 表記 ‘ㅅ’과 ‘ㄷ’의 史的 考察,” 省谷論叢 18.
- \_\_\_\_\_ (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李仁子(1984) “15世紀 國語의 ‘ㄷ, ㅅ’ 終聲考,” 東國大 碩士學位論文.
- 崔明玉(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s-t-變則動詞를 中心으로,” 國

語學 14.

崔林植(1989) 國語 內破化에 關한 研究, 啓明大 博士學位論文.

한영관(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冠嶽語文研究 10.

許 雄(1953) “李朝初期 文獻의 表記法에 나타난 文法意識,” 국어국문학 3.

\_\_\_\_\_ (1958) 國語音韻論, 正音社.

\_\_\_\_\_ (1965) 國語音韻學, 正音社.

\_\_\_\_\_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